

포교도량된 성철스님 생가

산청 목곡리 겁외사 3일 봉불식

20일 유물관 개관 노트등 유품 전시

정립한 스님의 꿈같은 성품이 배여 있고 스님께서 남긴 몇 점 안 되는 유품은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스님의 말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스님의 친필로 쓰여진 4·8봉축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스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전시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하루 3-4대의 관광버스가 찾은 정도로 성철 스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성철스님문화회 대표 원택스님은 "생가와 겁외사를 전체적으로 기념관으로 꾸며, 단순한 생가복원이 아닌 스님의 뜻과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성철(性徹, 1912~1993) 큰스님의 생가터가 수행과 포교공간으로 조성됐다. 성철스님문화회(대표 원택)는 성철스님의 생가터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3천여평의 현지에 스님 생가와 유물전시관, 사찰 등 종합적인 수행과 문화공간 불사를 추진해 3일 1차로 겁외사 대웅전 비로자부처님 봉불식을 거행하고 일반인을 맞게 되었다. 겁외사는 '시간밖에 있는 절' '시간을 초월한 절'이란 뜻으로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지어 놓았

던 것. 겁외사 대웅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김호석 화백이 배재법으로 그려낸 성철스님의 진영이 함께 모셔져 시간을 초월해 생가에 돌아온 형형한 눈빛의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날 20일경이면 일반에 공개되는 유물전시관은 백련암에 보관돼 있던 성철 스님의 노트 안경 연필 고무신 지팡이 등이 전시되어 스님의 인간적인 소탈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39권의 크고 작은 노트와 메모 들은 법문에 앞서 교학적 이론을



◇성철스님 열반 7년만에 수행·포교공간으로 거듭난 성철스님 생가터에 들어선 겁외사 등 건물 전경.

안채, 사랑채는 스님의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석하단 백련암 방 모습과 사용하던 의자, 책상 등이 전시되며 대웅전 요사채 선원 누각 등을 갖춘 겁외사는 수행과 불법홍포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성철스님 문화회는 3일 봉불식, 20일경 유물전시관 개관에 이어 내년 3월 30일을 기념관 불사 회향일로 정하고, 이날 통상제막식과 불사 회향식을 함께 봉행할 예정이다. 산청=전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대정)는 '가자! 겨울 산사로 참나(眞人)를 찾아서'란 주제로 '참사람 수행결사(수련회)'를 개최한다. 제26차 수행결사는 12월 18일~12월 22일, 제27차 12월 28일~2001년 1월 1일, 제28차 1월 8일~1월 12일, 제29차 2월 3일~2월 7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20세이상 65세 미만, 남녀 각 23명이며 동참금은 7만원이다. 신청마감일은 11월 15일. (061)392-7502

전문상담사 6명 위촉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 생활상담실은 법률상담 우삼원 법무사, 세무회계 김종학 회계사, 부동산 분야에 홍영표 전문상담사 등 6인의 포교사를 전문상담사로 위촉했다. 지난 7월 문을 연 생활상담실은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해 왔다. 상담을 전문포교분야로 하는 여회회 진여회 회원들을 위주로 각 상담 17건, 불교신행상담 12건, 청소년 상담 7건, 법률 상담 7건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051)867-7799

있다.

천태종

영락사 원통보전 준공

도계 영락사(주지 덕진)는 17일 오전 10시 원통보전 낙성 및 관음불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3)541-0340. 18일에는 안동시 신세동 해동사(주지 집강)가 1553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054)852-6320.

진각종

부산에서 밀교대회

총금강회 부산지부는 해정 대장사(총학연구실장·사진) 초청 밀교대회 1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051)464-0668

남천심인당 개시불사

대전시 동구 대1동 남천심인당이 10월 23일 개시불사를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 일정 교육원장, 휴명 대전교구청장 등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개시불사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남천심인당이 개시불사를 계기로 대전 지역에 육자진언 수행의 진리를 전파하는 또 하나의 도량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남천심인당에는 대전교구 연합 심인합창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전지부, 사단법인 비르자나청소년협회 대전지부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법왕종

성승감호소 위문법회

총무원 부원장 만오스님(포항 용주사 주지)은 8일 신도들과 함께 성승 제1감호소로 위문법회를 떠났다. (054)278-8787

대구 갯바위 축제 성황

'제3회 갯바위 축제'가 4·5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항리 일대에서 펼쳐졌다.

경산지역의 명소로 보물 제431호인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 이 축제는 4일 갯바위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최희옥 경산시장을 비롯해 주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하는 경축식을 시작으로 '찬불가요 음악회'와 산신축원, 천왕·도당·장군굿거리 등이 열렸다. 5일에는 갯바위주차장에서 파계사 성전암 주지 철웅스님 초청법회와 유명 인기 연예인 공연 등이 마련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장경사 송전탑 철회"

스님·신도 3백여명 파천청사서 시위

국정원과 천주교의 반대에 밀려 최적 노선을 버리고 용인 장경사(주지 정후) 주변을 지나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인 인터뷰 4면)

스님 20여명과 신도·지역주민 300여명은 10월30일 파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인칙한 정부정책과 장경사 노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사진)를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어 7명(스님4명 주민3명)의 대표단을 선정, 산업자원부 이유종 서기관과 한전의 담당 소장을 만나, 2차례에 걸쳐 노선을 변경한 원칙을 밝히고 노선 안 변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종교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공개하라는 등 9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국정원과 천



주교의 민원은 수렴하면서도 장경사와 용인리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하는 이유를 대라며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산자부는 "민원 때문이 아니라 건설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전 운영소 중부건설소장 등 관계자는 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만나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납비협상으로 폄하한 것에 사과하고, 장경사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송전 노선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한·일 가톨릭주교 24명

통도사 저녁예불 참관

한일 천주교회 주교 24명이 8일 통도사의 저녁예불을 참관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7~9일 경남 양산의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제6회 한일주교 교류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이 기간중 양산의 대표적 사찰인 통도사를 찾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96년 처음 열린 한일주교 교류모임은 한일간 교우들은 김동구주교 해소에 천주교회가 나서자는 취지로 시

작되었으며, 그동안 양국의 역사연구와 사목 정보교환, 한일 청소년 교류 지원에 힘써왔다.

이번 모임에 한국측에서는 박정일 주교(한국주교회의 의장·마산교구장) 등 15명의 주교가 참석하며 일본측에서는 시마모토 카나메 대주교(일본 주교회의 의장) 등 9명의 주교가 자리를 함께 한다.

참석 주교들은 '한일간의 문화적인 관계와 교류(한림대 지명관교수)'와 '한일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다타카 유코 교수)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통도사와 감해박물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설암지 등을 둘러봤다. 사나사 주지 화암스님은 "작년 겨울 처음 사나사 주지로 부임했을 때 태고 보우 국사의 부도탑과 탐비 등 관련 유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사진) 놀랐다"며 "보우 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임에 틀림없다. 큰스님의 수행과 업적,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태고스님 탄신 700돌 행사 다채

사나사 기념관 건립·세미나·다례제 준비

신라와 고려를 이어온 선문구산을 하나로 통합한 원종국사 태고보우 스님, 내년이면 태고 보우 국사가 태어난 지 700년이 된다.

태고 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 보우 국사를 기리고 그 사상을 이어가기 위한 '원종국사 태고 보우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년 2월 창립 예정인 기념사업회는 태고 보우 국사 부도탑과 탐비가 있는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탄신일인 음력 9월 21일에 맞춰 학술 세미나, 다례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봄·가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스님이 탄생한 경기 양평과 출가 지인 양주 회암사, 열반지인 가평 소설암터 등 관련 유적지 지표조사와 학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사업회 준비위는 10월 28~29일 내년 본격적인 기념행사를 앞두고 태고 보우 스님 관련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스님의 탄생지인 양평을 중심으로 출가지인 양주 회암사지, 열반지인 가평 소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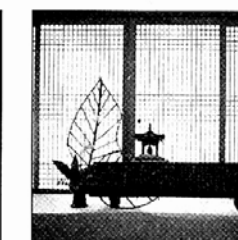
산사의 향기(대·소)



연화의 세계(대·소)



탑이 있는 풍경(대·소)



산사의 꽃향기(대)



신비의 달마도(소)



석굴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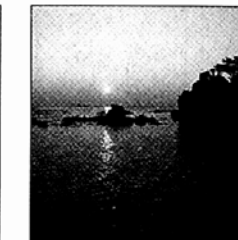
백련(소)



북한의 사찰(소)



선의 세계(소)



금강산의 사계(소)



달력(소)

8월 대지 마닐라(14매)

종류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원희동자
6. 흥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모항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강산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해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랑으로 품어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크기:대(30×31cm) 국6질, 가격:1,600원 소(26×26.5cm) 사륙12질, 가격:1,400원

매 수:표지포함 13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100부 이상
미니 차질이 달력은 200부 이상

미니 차질이 달력 →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